

‘절차 논란’ 종헌 개정안 인준 부결

조계종 원로회의서...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진입 무산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 46차 회의에서 중앙종회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 3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결했다.

절차상 하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계종 종헌 개정안이 결국 원로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진입은 무위로 돌아갔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 46차 회의에서 중앙종회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 3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결했다. 종헌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중앙종회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이 종헌 제130조 무기명 비밀투표 조항을 위반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안건을 중앙종회에 반려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원로회의는 비구니 호계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비구니 갈마는 비구니가 할 수 있도록 할 것 △원로의원의 징계는 원로회의의 2/3의 동의를 받을 것 △사면·복권·경감의 대상에서 별빈자는 제외하도록 규정된 종헌을 개정해 별빈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줄 것 등 3가지 입법안을 중앙종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원로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선학원, 제적원 해석 놓고 ‘攻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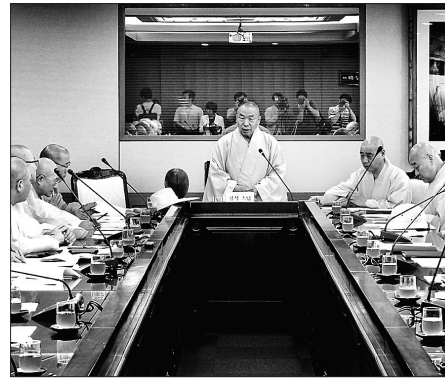
선학원 임원진들의 조계종 제적원 제출로 종단과 선학원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선학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호소했고 조계종은 최고 어른인 종정 진제 스님의 시중(示衆)을 위시해 선학원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포문을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열었다. 선학원은 7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이 제적원 제출을 비판하며 이뤄진 호법부 고발 등 행정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진 스님은 “법인관리법은 재단법인 선학원을 와해시키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법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망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출 사유로 ‘종헌 중범에 동의할 수 없음’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조계종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무조건 거부했다는 종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무위원이 만든 회의에는 모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법진 스님은 “합의가 파기됨으로서 종헌 제9조 3, 4항 그리고 법인법으로서 종헌 중범은 선학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이고 종단을 고사시키는 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제적원에서 종헌 중범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종헌 제9조 3, 4항과 법인법에 국한된 것으로 선학원과 소속 스님, 도제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당함을



7월 8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등 연석회의 모습(사진 왼쪽)과 7월 7일 진행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기자회견 모습(사진 오른쪽) 제적원 관련한 해석을 놓고 조계종과 선학원은 공방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7월 8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등 연석회의 모습(사진 왼쪽)과 7월 7일 진행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기자회견 모습(사진 오른쪽) 제적원 관련한 해석을 놓고 조계종과 선학원은 공방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법진 스님 “제적원 제출, 법인 지키기 위한 조치”

조계종, “종헌 동의의 못함은 배중”... 法대로 처리

일부 원로 스님 “한 뿌리인만큼 화합 해결” 당부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종정 진제 스님의 시중 발표와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 및 선학원 대책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로 선학원을 압박했다. 특히 조계종과 선학원의 최고 어른인 진제 스님이 선학원 임원진이 종헌 중범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선학원 설립정신에 위배된다고 경고한 것은 선학원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석회의는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결의하고 선학원 돌출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석회의는 성명서에서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여, 종단의 종헌·중범을 부정하고, 종도의 공의를 내린 것과,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시켰다. 종도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학원 임원진 스님들은 사익을 위해 선학원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단 집행부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종회 의장단 등은 “선학원 임원들이 제출한 제적원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종헌중범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과 도제

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단이 법인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선학원 분원장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대응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前 호계위원장 법등 스님은 7월 8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사의 1/3을 총무위원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이사진들이 분원장을 선동할 빌미를 준 것”이라며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법인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도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로 스님들은 선학원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스님은 7월 10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선학원 관련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2년 합의를 이룬 것처럼 다시 한 번 종단의 권위와 위상도 세우고 선학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누군가 중재에 나서 문제를 잘 해결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로의원 명선 스님은 “징계 등의 사무적이고 딱딱한 해결방법은 불화를 부르고 결국 갈라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종정 스님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직접 나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韓개신교인, 부처님 정각 성지 ‘땅밟기’ 논란

유튜브에 게재... 제재 하자 “하나님만이 구원” 황당 답변

서울 봉은사, 대구 동화사 ‘땅밟기’ 선교가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처님 성지에서도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ID Hyun Soo’는 7월 5일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청년 3명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1분 8초 가량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이어갔다. 동영상은 현지 인도 스님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ID Hyun Soo’는 “지인이 겪은 일”이라며 “지인이 ‘부처님 성지에서 뭐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도한다’는 등의 대응을 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고 하고서야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타종교에 존경, 존중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인도 부다가야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불교 최고의 성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석가의 탄생지인 룸비니, 최초 설법지인 사르나트, 열반지인 쿠시나가라와 함께 4대 성지로 불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불자들이 찾는다. 이런 곳에서 일부 개

신교인들이 땅밟기 선교를 자행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교회 단체마저도 비판하고 나섰다. 교회언론인회는 7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 젊은이 3명이 인도의 불교 성지 경내에 들어가 찬송과 기도를 했다. 이들이 어느 한국교회 소속 청년들이 맞다면, 이는 크게 꾸짖어야 할 일”이라며 “이웃 종교에 대한 배

현지 인도 스님이 직접 촬영해

“이웃종교 대한 최소한 예의 없나”

교회단체마저 “꾸짖을 일” 비판

려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선교는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할뿐더러 결국은 선교의 결과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종교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들이 한국교회에 속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바로잡습니다〉 7월 10일자 B5면 ‘책으로 만나는 대행 스님 가르침...’ 기사 중 ‘대행 스님은 1982년 한마음선원을 개원한 이래’를 ‘대행 스님은 1972년 한마음선원을 개원한 이래’로 바로잡습니다.

“개혁의 丹心 찾아야 종단 개혁 완수”

조계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 개최... 20년 성과 살펴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종책 모임이 1994년 종단 개혁의 결과물이며 이것이 필요약이면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19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세미나에서 94년 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년간 종단 운영을 평가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주요 발제자로 참여한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종단 정치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살피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었다.

법안 스님은 “1994년 개혁의 성공과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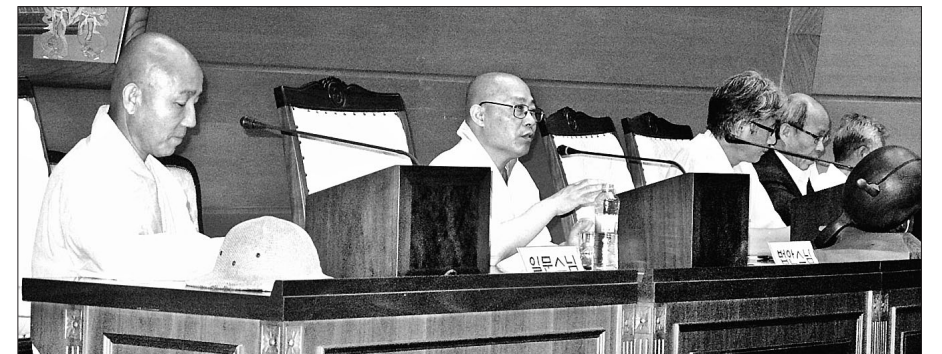
회의의 활동 결과 입안된 각종 입법들은 종단의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며 “그러나 비구니 참종권이나 재가신도의 종단 운영 참여 등 권력구조의 보다 광범위한 분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법안 스님, 권력 구조 변화 살펴

“종책모임 필요약이면 청산해야”

법안스님은 지난 11대 중앙종회에서 시작된 계파모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들은 필연적으로 종단 권력과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며 “그 결과 형성된 것이 이른바 종책모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책모임은 시기마다 이름을 달리



조계종 19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했지만 아직 그 실체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종책모임이 종권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필요약이 아니라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구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스님은 개혁의 단심(丹心, 우려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되찾아야 종단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류지호 월간 불광 주간이 ‘94년 체제 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를,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사회분야의 흐름과 과제’를 각각 주제 발제했으며,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광병찬 한겨레신문 대기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영철 콘텐츠개발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석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8월 15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